

'2010년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당너머한우농장-이현복 농가

경기지원 초장소장 한윤희

당너머 한우

지난해 11월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주최하는 등급판정결과 한우부문에서 우수농가로 선정된 당너머한우농장(대표 이현복)은 '물 맑은 양평개군한우'가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이곳 양평에서는 꽤 소문난 곳으로 현재 판매장과 식당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통해 축산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는 당너머한우를 소개한다.

최고 한우는 최적 환경에서 자란다

당너머한우농장은 자체브랜드로써 현재 번식우 160두와 비육우 90두 총 한우 250두를 사육하고 있다. 당너머한우농장의 한우는 최소 2~3산 이후 얻어낸 우량종으로 꾸준한 종자관리를 통해 외관도 뛰어나고 크기와 육질도 균일한 특징이 있다. 이현복 대표는 "최고의 한우는 최적의 환경에서 자란다"는 신념하에 친환경축사를 직접 설계하여 외적미관과 함께 바람과 채광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톱밥을 이용하지 않고도 단 한 방울의 가축분뇨도 유출시키지 않고 축사 주변의 조경을 실시하여 관광목적의 이미지를 갖도록 꾸며 나가고 있다. 이처럼 깨끗한 축사 환경 조성과 함께 번식우의 철저한 운동 관리로 지나치게 살찌지 않도록 함은 물론 주기적인 BM활성수 살포와 미네랄을 항시 급여하여 질병 예방을 통해 번식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당너머한우농장은 3개 축사로 되어있는데 각 축사마다 BMW 시설(Bacteria Mineral Water)로 좋은 물을 만들어 자동공급하고 날씨가 소에게 덥다고 판단되면 소에게 물을 뿌려주는 샤워 시설도 되어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한 탓에 농장에 들어서면 우선 축분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파리 또한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것은 바로 이현복 대표의 20년 간 쌓아온 친환경 유기농업의 노하우라 할 수 있다.

한우 거세 등급판정결과

(단위: 두, %)

구분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하	계
두수	15	13	2	-	-	30
출현율(A)	50.0	43.3	6.7	-	-	100
전국(B)	15.0	30.8	32.0	20.1	2.1	100
대비(A-B)	35.0	12.5	▲26.3	▲20.1	▲2.1	100

끝으로

이현복 대표에게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한우의 혈통을 개량 보존하여 순수 한우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업의 자존심을 지켜갈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또한 한우의 고급화, 균일화, 차별화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종족개량, 혈통보존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육질을 꾸준히 생산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도 기본(基本)에 충실한 사육관리를 바탕으로 소를 돈보다는 생명체로 보고 좋은 먹이와 쾌적한 환경으로 개체 항병력 증진을 바탕으로 구제역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에도 철저히 임하는 등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는 당너머한우농장의 더욱 밝은 내일이 있기를 기대해본다.